

전남 인구소멸 위험지역 진입

전국 광역단체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수 0.5 이하로
16개 시군도...고흥·신안 가장 위험, 나주시는 좁아져

지난해 곡성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44명이었다. 이웃 구례군에서는 1명 많은 145명이 태어났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2.5일에 1명꼴로 겨우 '아기 울음'을 들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갈수록 이같은 현상은 심각해 진다는 것이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여성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8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관련기사 3면>

전남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9만 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위험지수가 0.48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2년 0.58, 2014년 0.53, 지난해 0.5로 턱걸이 했었다. 세종시가 1.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시 1.34, 경기도 1.23, 인천시 1.22, 대전시 1.18, 서울시 1.14, 광주시 1.13으로

모두 1을 넘겼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는 고흥군이 0.167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에 진입한 곳은 신안·보성·함평·곡성·진도·장흥·구례·강진·완도·해남·담양·장성·영광·영암·화순군 등 무려 15곳이나 됐다.

특히 고흥군(0.167)과 신안군(0.203)은 전국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또 화순군은 2012년 0.51에서 지난해 0.41로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지난해 0.48에서 올해 0.53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났다.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도 0.54로 소멸 주의 단계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광양시(1.075)만 '1'을 넘겨 정상 단계였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젊어 소멸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광주 광산구(1.723)가 유일했다. 서구(1.196)와 북구(1.083)는 정상 단계였고, 남구(0.858)와 동

? 소멸위험지수
고령 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가임여성의 90%가 분포하는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에 주목할 표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 이상~1.5 미만이면 '정상' ▲0.5 이상~1.0 미만이면 '소멸 주의'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본다. 특히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구(0.610)는 소멸 주의 단계였다.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85곳에 이른다. 읍·면·동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3708곳 중 1490곳(40.2%)이었다. 특히 전남은 323개 읍·면·동 가운데 81.1%인 262곳이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수가 1.0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학적으로 쇠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라며 "소멸 위험군에 속하는 지자체는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부터 개선안 적용하라"

광주시 공모제안 마감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 등 목소리
"공공성 강화 전 사업 따자" 건설업체들 제휴·경쟁 치열

오는 8일 제안서 제출 마감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단계 대상 공원부터 국토교통부의 개선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마련된 기존 국토부 지침이 도시공원의 공공성 측면을 감안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고층아파트단지 조성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 만큼 광주시 역시 이에 따라 기존 공모 내용을 변경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광주시, 지역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수랑·송암·봉산·마복공원의 제안서 마감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토부의 개선안이 적용되면 공공성이 강화되고 상

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 1단계 사업 수주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1단계는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심사 과정에서 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체 소유 공원 토지'를 되팔거나 제휴를 맺는 등 이합집산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1단계 대상 공원마다 상당한 토지를 이미 매입해놓은 건설업체들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체에 토지를 팔아 이들 업체에게 중간 사로서 제안서를 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주주택이 건설에 최근 자사소유 공원 부지를 68억여원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정부 개선안이 아닌 기존안으로 1단계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을 예상하고 공원 토지를 사들인 건설업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정부의 개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이미 운영한 광주시장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안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낸 만큼 일정을 미루거나 점수만 제안서를 반려하고 개선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성 강화, 경쟁 강화, 환경 고려, 제안서 평가 개선 등을 담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 마련된 언론발표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푸틴 "北 핵실험 규탄"... 원유공급 중단은 이견

2시간 40분 정상회담...북핵 등 극동지역 실질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北核)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놓고는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2시간 40분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극동지역 개발과 양자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

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톤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해법 로드맵에 담겨 있으며, 이것이 현실적·단계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 뿐만 아니

라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데에도 합의했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다"며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연결, 전력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번영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천신만고 끝에...한국축구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한국 축구가 '타슈켄트의 기적'을 일궈내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관련기사 20면>

한국 대표팀은 6일 새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0차전 원정경기에서 0-0으로 승

부를 가리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조의 이란과 시리아가 2-2로 비기면서 한국이 조 2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9회 연속이자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0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된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상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약품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